

제1호(2014. 5. 16.)

농촌 마을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송미령 권인혜



1. 조사 개요	1
2. 농촌 마을 주민의 삶의 질 만족 실태	3
3. 요약 및 정책 과제	12

감 수: 박성재 선임연구위원 02-3299-4238 seongjae@krei.re.kr
내용 문의: 송미령 연구위원 02-3299-4351 mrsong@krei.re.kr
자료 문의: 성진석 선임전문원 02-3299-4212 jssaint@krei.re.kr

- 「KREI 현안분석」은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 약

- 농촌지역에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 만족도를 파악하여 삶의 질 향상 정책에 반영하고자 <농촌 마을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의 총 20개 마을에 거주하는 606명의 응답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농촌 마을 주민들이 느끼는 행복감과 정주 만족감, 이주 의향과 관련한 답변 등을 종합해 볼 때, 주민들이 체감하는 농촌의 삶의 질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으로 판단된다. 현재 느끼는 행복감(‘나는 지금 행복하다’)에 약 85%의 응답자가 중간 이상의 점수를 부여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정주 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약 82%의 응답자가 중간 이상의 점수를 부여했다. 74%의 응답자는 타 지역으로의 이주 의향이 전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2012년도의 조사·분석 결과와 비교할 때 다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발견되었다. 특히 주거 및 생활환경을 비롯한 기초적 생활 여건의 개선이 시급하다. 타 지역으로의 이주 의향 분석 결과에서도 이주하려는 이유로 교통 불편을 포함하여 생활환경 불편 문제를 가장 많이 제기하였기 때문이다. 이주 의향과 관계없이 조사 응답자들은 대체로 농촌 마을 생활에서 가장 불편한 점으로도 열악한 생활환경을 꼽고 있다(30%).
- 한편 농촌 마을 주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 만족도는 시군의 전반적 발전 정도보다는 본인이 살고 있는 마을의 여건과 더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보다 섬세하고 현장 밀착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결과이기도 하다. 대규모 중심지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주거 및 생활환경, 문화여가 서비스 부문은 대규모 중심지마을의 우월성이 두드러진 반면에 보건복지 서비스 부문은 소규모 배후마을의 열등성이 두드러졌다.
- 지역 중심지로의 접근성도 농촌 마을 주민들이 느끼는 주관적 삶의 질 만족도에 중요한 요소로서,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을과 중심지와의 접근성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를 확인할 수 있다. 지역 중심지로의 접근성은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이용의 편리성과 관련되는 탓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마을과 지역 중심지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을 비롯하여 및 각종 서비스의 배달체계 구축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1. 조사 개요

- 농촌지역에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파악하여 삶의 질 향상 정책에 반영하고자 <농촌 마을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 각종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한 현황 분석만으로는 주민들이 삶 속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 실태나 행복감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의 물리적 환경, 중심지 접근성 등에 따라서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체감 만족도는 다양하게 나타날 것임.
- 전국 농촌지역의 총 20개 마을을 패넬로 선정하여 주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함. 포괄적 의미에서 삶의 질 만족도(행복도) 및 사는 지역의 물리적 정주 환경에 초점을 둔 삶의 질 만족도, 삶의 질 향상 정책과 관련한 7개 부문¹⁾ 만족도, 현재 마을에서의 정주 의향과 서비스 수요 등을 질문함.
 - 2012년도에 조사 결과와의 비교 분석도 실시함.
- 조사는 2013년 9월 4일부터 24일까지 21일 동안 전화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함. 조사 결과 회수된 681부의 응답지 중 불성실하거나 일관성 없이 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 606명의 응답을 대상으로 결과를 분석함.
- 마을 패넬 선정에 있어서는 시·군 단위의 전반적 생활 여건을 나타내는 ‘2013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를 참고로, 마을 단위의 정주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주요 기준으로 ① 마을의 인구 변화, ② 정주체계상 마을 위상(중심지마을 및 배후마을 여부), ③ 지역 중심지 접근성(시·군청 소재지까지 소요시간) 등을 고려함.

“
거주 마을의 물리적 환경,
중심지 접근성 등에
따라서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체감 만족도는
다양하게 나타날 것
”

1) 삶의 질 관련 7개 부문은 주거 및 생활환경, 지역경제, 지역사회, 교육, 환경, 보건·복지, 문화여가로 구성됨.

○ 조사 마을과 주요 선정 기준에 대한 특성은 <표 1>과 같음.

표 1. 조사 마을의 특성

지수 순위 (2013)	시·군 유형	시·군	읍면	행정리	마을 규모 (2010)	가구수 변화 (’05-’10)	정주체계 성격	조사 응답 수
중위	군	연천군	청산면	초성2리	중규모 마을 (200-299)	감소 (-1)	배후마을	31
하위	군	화천군	화천읍	풍산2리	중규모 마을 (100-149)	감소 (-2)	배후마을	35
상위	도농통합시	제천시	백운면	평동1리	중규모 마을 (100-149)	감소 (-1)	중심지마을	31
중위	군	홍성군	홍성읍	오관1리	대규모 마을 (300-499)	증가 (+7)	중심지마을	41
중위	도농통합시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소규모 마을 (20-39)	유지	배후마을	37
하위	군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소규모 마을 (40-59)	유지	배후마을	26
하위	군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소규모 마을 (80-99)	유지	배후마을	38
상위	군	화순군	동면	오동리	중규모 마을 (200-299)	증가 (+2)	배후마을	26
하위	군	청송군	진보면	진안1리	대규모 마을 (300-499)	유지	중심지마을	35
상위	도농통합시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대규모 마을 (300-499)	증가 (+6)	중심지마을	43
상위	도농통합시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2리	중규모 마을 (150-199)	감소 (-1)	배후마을	20
하위	군	화천군	상서면	신대리	소규모 마을 (60-79)	감소 (-2)	배후마을	20
중위	군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소규모 마을 (80-99)	유지	배후마을	21
하위	군	청송군	과천면	신흥1리	소규모 마을 (40-59)	감소 (-1)	배후마을	20
하위	도농통합시	논산시	벌곡면	대덕리	소규모 마을 (60-79)	감소 (-2)	배후마을	22
하위	군	양평군	청운면	용두1리	중규모 마을 (150-199)	증가 (+2)	중심지마을	39
상위	군	증평군	도안면	도당1리	소규모 마을 (40-59)	증가 (+1)	배후마을	20
하위	군	신안군	도초면	수항리	중규모 마을 (150-199)	증가 (+1)	중심지마을	42
중위	군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소규모 마을 (80-99)	증가 (+3)	배후마을	38
중위	군	남해군	남면	홍현1리	소규모 마을 (80-99)	유지	배후마을	21

주 1) ‘마을 규모’, ‘농업 성격’은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기준

2) ‘마을 규모 변화’의 괄호 안은 2005년과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의 총가구수 규모별 구간(1~10)을 기준으로 한 변화

3) ‘정주체계 성격’은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를 기준으로 하되, 진주시 삼곡리(문산읍사무소는 삼곡리에 소재), 청송군 진안1리(진보면사무소는 진안2리에 소재하지만 진안1리회관과 약 400m 거리에 위치)는 중심지마을로 구분함.

2. 농촌 마을 주민의 삶의 질 만족 실태

2.1. 농촌 마을 주민의 체감 행복도

□ ‘개인의 체감 행복도’는 응답자의 40%,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정주 만족도’는 응답자의 42%가 긍정적임. ‘행복도’와 ‘정주 만족도’ 모두 80% 이상이 보통 이상으로 인식함.

- 포괄적 의미의 행복감을 묻는 ‘나는 지금 행복하다’라는 문항에 대해 38.9%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인식(‘대체로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하는 것으로 나타남.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약 85%의 응답자가 중간 이상의 점수를 부여함.
- 구체적으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정주 만족감을 묻는 질문(‘나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 많은 42.2%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약 82%의 응답자가 중간 이상의 점수를 부여함.

“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행복도’와 ‘정주 만족도’
모두 긍정적(보통
이상)으로 인식
”

표 3. 농촌 주민의 체감 행복도 및 거주지 정주 만족도 단위: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3.8	11.0	46.3	19.8	19.1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	6.6	11.3	39.9	23.7	18.5

-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9.4%, 시·군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55.2%가 긍정적으로 전망함.

표 4. 시·군 및 마을에 대한 발전 가능성 인식 단위: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우리 마을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10.8	25.0	24.8	21.5	17.9
우리 사군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5.5	14.9	24.5	31.5	23.7

“ 전반적인 농촌 마을의 삶의 질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3점으로, 환경, 보건·복지, 지역사회, 교육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됨 ”

- ‘개인의 체감 행복도’는 2012년도에 비해 2013년에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거주 마을이나 시·군의 발전 가능성 전망에 대해서는 2013년의 점수가 약간 낮아짐.
 - 다만, 2012년 조사의 표준오차가 95% 신뢰수준에서 $\pm 5.2\%p$, 2013년 조사의 표준오차가 95% 신뢰수준에서 $\pm 3.8\%p$ 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거주 지역에 대한 ‘정주 만족도’는 2013년 신규 조사 항목이라 전년도 결과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점수로 보임.

표 5. 만족도 점수 비교(2012 ~ 2013년)

단위: 점

구 분		나는 지금 행복하다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	우리 마을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우리 시·군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5점 척도	2012년	3.25	-	3.23	3.71
	2013년	3.38	3.36	3.11	3.53
100점 환산점수	2012년	65.0	-	64.6	74.2
	2013년	67.6	67.2	62.2	70.6

주: 2012년 조사의 표준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5.2\%p$, 2013년 조사의 표준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8\%p$

□ 주민들이 응답한 전반적인 농촌 마을의 삶의 질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3점으로, 환경, 보건·복지, 지역사회, 교육 부문은 상대적으로 높게, 문화·여가, 지역경제, 주거 및 생활환경 부문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됨.

-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의 18개 세부분항에 대해 주민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하여 ‘주관적 삶의 질 만족도 지수’를 산출함.²⁾
- 2013년도 주관적 삶의 질 만족도 지수는 3.3점(100점 기준으로 환산 시 65.8점)으로, 비교적 양호한 점수로 보여짐.

2) ‘주관적 삶의 질 만족도 지수’는 7개 정책 부문의 세부분항(부문에 따라 2~4의 세부분항으로 구성)에 대한 주민들의 응답 점수를 평균함. 이 부문별 지수를 가중평균하여 종합 지수를 구함(가중평균 산출 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개발한 ‘2013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의 부문별 가중치 적용).

- 전체 세부사항의 평균(3.28)을 기준으로 볼 때, 환경, 보건·복지, 지역사회, 교육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고, 문화·여가, 지역경제, 주거 및 생활환경 부문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됨.
 - 주거 및 생활환경(3.0점), 지역경제(2.9점), 지역사회(3.5점), 교육(3.4점), 환경(3.8점), 보건·복지(3.6점), 문화·여가(2.5점)

□ 2012년과 비교해 2013년도는 ‘주거 및 생활환경’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주관적 삶의 질 만족도 지수’가 상승함. ‘주거 및 생활환경’ 부문에서는 0.3점이 낮아짐.

- 주관적 삶의 질 만족도 지수를 2012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아짐.³⁾
 - 지역경제(+0.8), 보건·복지(+0.8), 교육(+0.9), 지역사회(+0.7) 부문에서는 만족도가 제법 눈에 띄게 높아졌고, 문화·여가(+0.3), 환경(+0.4) 부문에서는 소폭 상승함.
 - 주거 및 생활환경 부문의 경우는 3.3점에서 3.0점으로 낮아짐.

“
전년도와 비교 시
2013년도에 ‘주거 및
생활환경’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주관적 삶의 질
만족도 지수’가
상승함
”

그림 1. 주관적 삶의 질 만족도 지수 비교(2012년과 2013년)



3) 95% 신뢰수준에서 표준오차는 2012년 조사가 ±5.2%p, 2013년 조사가 ±3.8%p임. 2012년 결과의 오차범위 내에서 가능한 최대값과 2013년 결과의 오차범위 내 최소값을 비교해 보면 주관적 삶의 질 지수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음.

2.2. 시·군 및 마을 특성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 만족도 지수

□ 시·군의 전반적 발전 정도와 마을 주민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삶의 질 만족도는 상관관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시·군의 발전 정도에 따른⁴⁾ 주관적 삶의 질 만족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시·군 발전 정도와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사이에는 주목할 만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음.⁵⁾

○ 이는 주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만족도가 지역의 종합적 여건을 나타내는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보다는, 각 마을이 속한 미시적 여건과 개인(가구)의 상황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일 것임.

○ 따라서 이하에서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 만족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이는 마을의 인구규모와 입지, 중심지 접근성 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함.

□ 중심지마을 및 배후마을 여부에 따라 ‘주거 및 생활환경’, ‘교육’, ‘보건·복지’, ‘문화·여가’ 부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임.

○ 중심지마을과 배후마을 주민의 주관적 삶의 질 만족도 지수는 분명한 차이를 보임. ‘주거 및 생활환경’, ‘교육’, ‘보건·복지’, ‘문화·여가’ 부문에서 중심지마을 주민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남<표 6>.

표 6. 마을의 가구 규모 및 정주체계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 지수

구 분	주관적 삶의 질 지수	주관적 삶의 질 부문 지수						
		주거 및 생활환경	지역 경제	지역 사회	교육	환경	보건 복지	문화 여가
배후마을	3.21	2.91	2.87	3.44	3.28	3.81	3.48	2.31
중심지마을	3.42	3.18	3.01	3.48	3.57	3.83	3.82	2.85
유의확률(양측)	***	***			**		***	***

* : p<0.1, ** : p<0.05, *** : p<0.01

“
주민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지역의
종합적 여건을
나타내는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보다는,
각 마을의 미시적
여건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
”

4)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는 7대 부문에 대한 시·군의 종합적 여건을 나타내며, 2013년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를 기준으로 상위 시·군, 중위 시·군, 하위 시·군으로 유형 구분함.

5)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지역사회와 문화여가 두 부문뿐이며, 상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가 더 높을 것이라는 통상적 예상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

□ 특히 중심지마을·배후마을 구분과 인구 규모를 함께 고려할 경우, 소규모 배후마을과 대규모 중심지마을 간에서 보다 뚜렷한 차이가 나타남.

- 중심지 또는 배후지로서 보다 실질적인 여건을 고려하기 위해 마을의 인구 규모⁶⁾를 함께 고려하여 소규모 배후마을, 중규모 배후마을, 중규모 중심지마을, 대규모 중심지마을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 주거 및 생활환경 부문에서는 대규모 중심지마을이 나머지 어떤 유형과 비교했을 때도 분명한 차이를 보임.
 - 대규모 중심지마을은 소규모 배후마을보다 평균 지수가 0.5 정도 더 높고, 중규모 배후마을 및 중규모 중심지마을 각각에 대해 모두 0.4 정도 더 높음.
- 소규모 배후마을은 대규모 중심지마을과만 차이를 보였고, 중규모 배후마을이나 중규모 중심지마을과는 차이가 없었음. 중규모 배후마을과 중규모 중심지마을 간에도 차이가 없었음.
 - 이를 통해 짐작하건데, 인구 규모가 상당 수준(이 분석에서는 300호 이상)으로 커지지 않는다면 생활환경 여건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임.
- 문화·여가 부문도 다른 유형들에 비해 대규모 중심지마을에서 뚜렷하게 높은 평균 지수를 보임.
 - 소규모 배후마을이나 중규모 배후마을과 비교해서는 1.0 정도 더 높았고, 중규모 중심지마을과는 0.9 정도 차이가 남.
- 보건·복지 부문은 차이를 보이는 양상이 약간 다름. 다른 모든 유형들에 비해 소규모 배후마을에서 평균 지수가 뚜렷하게 낮은 경향을 보임.
 - 소규모 배후마을은 대규모 중심지마을보다 0.5, 중규모 중심지마을보다 0.4, 중규모 배후마을보다 0.3 정도 더 낮았음.

“
 주거 및 생활환경
 부문에서는 대규모
 중심지마을이 나머지
 어떤 유형과 비교했을
 때도 분명한 차이를
 보임
 ”

6) 가구수를 기준으로 100호 미만은 ‘소규모 마을’, 100호 이상 300호 미만은 ‘중규모 마을’, 300호 이상은 ‘대규모 마을’로 구분함.

표 7. 마을 인구 변화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 지수 차이

부 문	유형 구분	지수 평균	사후검정 결과		
			중규모 배후마을	중규모 중심지마을	대규모 중심지마을
주관적 삶의 질 지수	소규모 배후마을	3.18			*** (p=0.006)
	중규모 배후마을	3.27			
	중규모 중심지마을	3.37			
	대규모 중심지마을	3.48			
주거 및 생활환경	소규모 배후마을	2.87			*** (p=0.000)
	중규모 배후마을	3.00			** (p=0.042)
	중규모 중심지마을	2.98			** (p=0.028)
	대규모 중심지마을	3.37			
지역경제	소규모 배후마을	2.84			
	중규모 배후마을	2.95			
	중규모 중심지마을	2.98			
	대규모 중심지마을	3.03			
지역사회	소규모 배후마을	3.48			
	중규모 배후마을	3.36			
	중규모 중심지마을	3.62			
	대규모 중심지마을	3.36			
교육	소규모 배후마을	3.24			* (p=0.059)
	중규모 배후마을	3.36			
	중규모 중심지마을	3.48			
	대규모 중심지마을	3.66			
환경	소규모 배후마을	3.83			
	중규모 배후마을	3.79			
	중규모 중심지마을	3.96			
	대규모 중심지마을	3.70			
보건·복지	소규모 배후마을	3.38	* (p=0.085)	** (p=0.022)	*** (p=0.004)
	중규모 배후마을	3.72			
	중규모 중심지마을	3.79			
	대규모 중심지마을	3.85			
문화·여가	소규모 배후마을	2.31			*** (p=0.000)
	중규모 배후마을	2.32			*** (p=0.000)
	중규모 중심지마을	2.38			*** (p=0.000)
	대규모 중심지마을	3.31			

* : p<0.1, ** : p<0.05, *** : p<0.01

주 1) 사후검정으로는 Scheffe 검정을 실시했으며, 비교 집단의 등분산성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크루스칼 왈리스 검정방법을 사용함.

2) 굵은 박스 표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유형 간 차이가 있는 부문임(음영 표시는 각 유형 간 비교 가능한 모든 경우이며, 대각선 표시는 같은 유형 간 비교이거나 음영 표시 란에서 이미 비교된 경우).

“
문화·여가 부문도
다른 유형들에 비해
대규모 중심지마을에서
뚜렷하게 높은 평균
지수를 보임
”

□ 지역 중심지로의 접근성은 주관적 삶의 질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시·군청 소재지 접근성이 높은 마을에서 주관적 삶의 질 만족도가 더 높음.

- 마을에서 시·군청 소재지까지의 접근성⁷⁾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 지수를 살펴본 결과, 접근성이 높은 마을에서 주관적 삶의 질 만족도가 더 높음.
 - 주관적 삶의 질 지수는 ‘15분 이내 마을’이 ‘30분 초과 마을’보다, ‘15~30분 마을’이 ‘30분 초과 마을’보다 각각 더 높게 나타남.
-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 경우는 ‘주거 및 생활환경’, ‘지역사회’, ‘보건복지’, ‘문화·여가’ 부문임.
 - 시·군청 소재지까지 상당 수준으로 멀리 떨어져 위치한 마을(이 분석의 경우는 30분)의 경우 ‘주거 및 생활환경’, ‘보건·복지’, ‘문화·여가’와 관련된 만족도가 낮아짐.
 - 이 세 부문에 대해 ‘15분 이내 마을’이 ‘30분 초과 마을’보다, ‘15~30분 마을’이 ‘30분 초과 마을’보다 각각 더 높게 나타남. ‘15분 이내 마을’과 ‘15~30분 마을’ 간에는 차이가 없음.
- ‘지역사회’ 부문은 이와는 다른 패턴이 나타남. 15~30분 마을에서 상대적으로 더 가까운 마을(15분 이내)보다 평균 지수가 0.32점 더 높음.
 - 소재지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에서 주민들 간의 교류나 마을 발전을 위한 공동의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음.
- 그러나 30분 이상 떨어진 마을의 경우 ‘15~30분 마을’보다 지역사회 부문 지수가 0.24 더 낮음. 앞선 분석 결과처럼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는 주거와 생활환경, 보건·복지, 문화·여가 관련 만족도가 뚜렷이 낮아지므로, 이러한 마을에서는 다른 특별한 유인이 없다면 인구가 점차 줄고 따라서 지역사회 활력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음.

“
지역 중심지로의 접근성은 주관적 삶의 질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
”

7) 이 분석에서의 접근성은 자동차로 소요되는 시간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의 접근성(대중교통 운행 여부, 운행 빈도 등)은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

표 8. 시·군청 소재지 접근성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 지수 차이

부 문	유형 구분	지수 평균	사후검정 결과	
			15~30분	30분 초과
주관적 삶의 질 지수	15분 이내	3.31		* (p=0.067)
	15~30분	3.39		*** (p=0.001)
	30분 초과	3.12		
주거 및 생활환경	15분 이내	3.11		*** (p=0.002)
	15~30분	3.13		*** (p=0.000)
	30분 초과	2.74		
지역경제	15분 이내	2.85		
	15~30분	2.97		
	30분 초과	2.92		
지역사회	15분 이내	3.30	*** (p=0.003)	
	15~30분	3.62		** (p=0.039)
	30분 초과	3.38		
교육	15분 이내	3.48		
	15~30분	3.46		
	30분 초과	3.19		
환경	15분 이내	3.73		
	15~30분	3.86		
	30분 초과	3.86		
보건복지	15분 이내	3.67		** (p=0.010)
	15~30분	3.77		*** (p=0.000)
	30분 초과	3.30		
문화여가	15분 이내	2.77		*** (p=0.000)
	15~30분	2.71		*** (p=0.000)
	30분 초과	1.95		

* : p<0.1, ** : p<0.05, *** : p<0.01

주 1) 사후검정으로는 Scheffe 검정을 실시했으며, 비교 집단의 등분산성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크루스칼-왈리스 검정방법을 사용함.

2) 굵은 박스 표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유형 간 차이가 있는 부문임(음영 표시는 각 유형 간 비교 가능한 모든 경우이며, 대각선 표시는 같은 유형 간 비교이거나 음영 표시 란에서 이미 비교된 경우).

□ 다수의 농촌 주민들은 계속 현재의 마을에 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농촌 마을 패널 조사 대상 주민들의 약 82%는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의향이 없음.

○ 응답자의 약 82%는 이주 의향이 없는 것으로 응답했고, 그 중에서도 약 74%는 전혀 이주할 생각이 없다고 답함.

“ 시·군청 소재지까지 상당 수준으로 멀리 떨어져 위치한 마을(이 분석의 경우는 30분)의 경우 ‘주거 및 생활환경’, ‘보건·복지’, ‘문화·여가’와 관련된 만족도가 낮아짐 ”

“ ‘지역사회’ 부문은 이와는 다른 패턴이 나타남 ‘지역사회’ 부문은 15~30분 마을이 중심지에 더 가까운 마을보다 만족도가 더 높음 ”

- 타 지역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약 12%임(4%는 강한 이주 의향).

- 이주 의향을 가진 응답자 중에서 절반 정도(48.6%)가 도시로 옮겨가기를 원했고, 4분의 1정도는 다른 농촌 시·군(27.1%)을 선호함. 현재 거주하는 지역(시·군 또는 읍면) 내에서 움직이겠다는 응답이 19% 정도를 차지함.
 - 현재 거주 지역 내의 다른 곳을 포함하여, 약 46%는 이주를 하더라도 농촌지역 안에서 움직이겠다는 의견임.

□ 이주 의향을 가진 농촌 마을 주민들은 소득·일자리, 생활환경 불편, 자녀교육 문제를 이유로 꼽음.

- 이주 의향을 가진 응답자 중 가장 많은 경우는 ‘살고 있는 곳의 생활환경 불편’(17.1%)을 그 이유로 꼽음. ‘교통 불편’(1.4%)을 더하면 18.5%가 농촌지역의 불리한 생활여건과 관련된 것임.
 - 소득 증대(8.6%), 구직 문제(11.4%) 등 경제활동 문제(20.0%), 자녀교육 문제(10.7%), 열악한 의료서비스 환경(10.0%) 등이 농촌주민들이 이주를 희망하도록 만드는 주요 이유로 나타남.
- 이주 의향과 관계없이 전체 조사 대상자에게 마을에서 생활하기에 가장 불편한 점을 질문한 결과,⁸⁾ ‘교통 불편’(16.5%),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생활인프라 부족’(8.1%), ‘병원 이용 불편’(약 7.1%) 등의 답변이 가장 많음. ‘기초적 생활서비스 이용의 어려움’(4.8%)도 약 5%를 차지함.
 - 정주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여건이 충족되고 있지 못한 것과 관련한 내용이 전체 응답의 37% 정도를 차지함.
- 상기 결과를 종합할 때, 이주 의향에 관계없이 생활환경 불편이 전반적으로 농촌 마을 주민들에게 인식되는 불편 요소라고 할 수 있음. 반면 이주 의향을 가진 주민들의 경우에만 높은 응답을 보인

“

조사 대상 농촌 주민의 약 82%는 현재 마을에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주 의향에 관계없이 생활환경 불편이 전반적으로 농촌 마을 주민들에게 인식되는 불편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8) 약 35%의 응답자들은 ‘특별히 불편한 점이 없다’고 응답해 거주환경에 대해 별다른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주민들도 제법 존재함을 알 수 있음.

소득·일자리 문제와 자녀교육 문제는 불편 인지를 넘어 이주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하게 만드는 요소로 볼 수 있음.

표 8. 마을에서 생활하기에 가장 불편한 점

구분	응답 비율	구분	응답 비율
특별히 불편한 점이 없다	35.3%	주택이 노후·불량하다	2.3%
교통이 불편하다	16.5%	쓰레기, 환경오염 등 주변 환경이 좋지 않다	2.0%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생활인프라가 좋지 않다	8.1%	응급상황 시 적절한 대처가 힘들다	2.0%
병원이 멀다	7.1%	자녀(학생) 교육 환경이 좋지 않다	0.8%
문화·체육·여가 환경이 좋지 않다	5.0%	이웃 주민들과 친해지기 어렵다 /관계가 좋지 않다	0.5%
기초적인 생활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들다	4.8%	치안이 불안하다	0.2%
일자리와 소득 기회가 부족하다	4.3%	그 외 이유	5.6%
생활비가 많이 든다	3.5%	모름/무응답	2.0%

“
 종합할 때, 주민들이
 체감하는 농촌의 삶의
 질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으로 판단됨
 ”

3. 요약 및 정책 과제

□ 농촌 마을 주민들이 느끼는 행복감과 정주 만족감, 이주 의향과 관련한 답변 등을 종합할 때, 주민들이 체감하는 농촌의 삶의 질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으로 판단됨.

- 현재 느끼는 행복감(‘나는 지금 행복하다’)에 대해 약 39%의 조사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했으며,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까지 합하면 약 85%의 응답자가 중간 이상의 점수를 부여함.
-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정주 여건에 보다 초점을 둔 만족도를 묻는 질문인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에 대해 약 42%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를 합하면 약 82%의 응답자가 중간 이상의 점수를 부여함.

- 타 지역으로의 이주 의향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약 82%의 응답자가 이주 의향이 없었고, 이 중에서도 약 74%는 전혀 이주할 생각이 없다고 답함.
- 이주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12% 정도였으나, 이 경우에도 약 19%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시·군 및 읍·면) 내의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했고, 약 27%는 다른 지역으로 옮기되 농촌 사군으로 가고 싶다고 답함.
 - 이주 의향을 가진 응답자의 절반 정도(46%)는 여전히 농촌지역을 이주 목적지로 생각하고 있음.

□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 및 생활환경을 비롯한 기초생활 여건 개선이 시급함.

- 2012년도 조사 결과와의 주관적 삶의 질 만족도 지수 비교에서는 주거 및 생활환경 부문에서만 지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타 지역으로의 이주 의향 결과에서 이주하려는 이유 중 상당히 큰 비중이 생활환경과 관련된 것임. 이주 의향 응답자들은 교통 불편을 포함하여 생활환경 불편 문제를 가장 많이 제기함.
- 이주 의향과 관계없이 전체 조사 대상자들이 마을 생활에서 불편한 점으로 꼽은 것도 상당한 비중이 열악한 생활환경(30%)에 대한 것임.
 - 구체적으로 ‘교통 불편’(16.5%),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생활인프라 열악’(8.1%), ‘기초 생활서비스 이용의 어려움’(4.8%) 등임.
 - 여기에 병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 시의 불편(7.1%), 주택의 노후·불량(2.3%) 등의 문제까지 합치면 40% 정도가 정주에 필요한 기본적 여건이 충족되고 있지 못한 현실과 관련한 내용임.
- 따라서 농촌 마을 주민들이 감수해야 하는 열악한 기초 생활인프라 및 생활서비스 이용 여건을 개선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들이 감수해야 하는 열악한 기초 생활인프라 및 생활서비스 이용 여건을 개선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
 주민들이 큰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환경 수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각 부문에서 보다 적은 예산으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도 중요할 것임
 ”

- 농촌 주민 대상 삶의 질 향상의 최우선 과제는 기초 생활인프라 및 기초 생활서비스 이용 여건 개선에 두어야 함.

○ 생활인프라 확충은 큰 비용이 소요되는 일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대규모 인프라 조성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이 큰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환경 수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각 부문에서 보다 적은 예산으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도 중요할 것임.

- 대안 모색 시 정주체계 성격과 인구 규모, 지역 중심(서비스 중심지)으로의 접근성 등 삶의 질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함.

□ 한편 주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 만족도는 시·군의 발전 정도보다는 본인이 살고 있는 마을의 미시적 여건과 더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짐.

○ 마을의 정주체계상 위치, 인구(가구) 규모, 중심지로의 접근성 등이 삶의 질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요소로 나타남.

□ 대체로 대규모 중심지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주거 및 생활환경, 문화·여가 부문은 대규모 중심지마을의 우월성이, 보건·복지 부문은 소규모 배후마을의 열등성이 두드러짐.

○ 주거 및 생활환경, 교육, 보건·복지, 문화·여가 부문에서 중심지마을은 배후마을에 비해 생활인프라 및 생활서비스 이용 측면에서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음.

○ 정주체계 성격과 함께 인구 규모를 고려한 경우 소규모 배후마을과 대규모 중심지마을 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남.

- 주거 및 생활환경, 문화·여가 부문에서는 대규모 중심지마을의 우월성이 두드러진 반면, 보건복지 부문은 소규모 배후마을의 열등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특이점이 있음.

- 즉, 주거 및 생활환경, 문화·여가 부문은 나머지 세 유형에 비해 대규모 중심지마을의 지수가 더 높았고, 보건·복지 부문은 나머지 세 유형에 비해 소규모 배후마을의 지수가 더 낮았음.
- 향후 소규모 배후마을의 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지역 중심지로의 접근성도 마을 주민들이 느끼는 주관적 삶의 질 만족도에 중요한 요소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심지와 접근성은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임.

- 시·군청 소재지와 접근성이 높은 마을에서 주관적 삶의 질 만족도가 더 높다는 분석결과들을 확인함.
 - 시·군청 소재지에서 상당 수준으로 멀리 떨어져 위치한 마을의 경우 ‘주거 및 생활환경’, ‘보건·복지’, ‘문화·여가’ 부문에 대해 평균 삶의 질 만족도 지수가 낮아짐.
- 지역 중심지로의 접근성은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이용의 편리성과 관련되는 것임. 앞서 중심지마을과 배후마을 간에 확인된 삶의 질 만족도의 차이도 단순히 마을 위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비스 이용 여건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2012년과 2013년의 두 차례 조사에서 주관적 삶의 질 만족도 지수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부문은 ‘보건·복지’, ‘문화·여가’, ‘교육’ 부문임. 이러한 부문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지역의 중심지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 마을 생활의 불편한 점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교통 불편’(16.5%)을 꼽고 있음을 감안할 때, 중심지와 접근성은 농촌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개선 과제가 될 것임.
 -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 중심지와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 및 서비스의 배달체계 구축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수 있음.

“
 시·군청 소재지와 접근성이 높은 마을에서 주관적 삶의 질 만족도가 더 높다는 분석결과들을 확인함.
 따라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심지와 접근성은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임
 ”

KREI 현안분석 제1호
농촌 마을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인 최세균
편집위원 박성재, 김병률, 박준기, 성주인, 한석호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문원사
02-739-3911 munwonsa@hanmail.net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